

# 동원된 미디어, 전시체제기 만담부대와 만담가들\*

배선애\*\*

## <차례>

1. 만담, 웃음과 선동 사이
2. 위문·감사·독려의 시대 이동위문연예대의 위치
3. 제국과 미디어 결탁의 총아, 동원된 미디어로서의 만담부대
  - 3.1. 인간 미디어의 효율 : 야담만담부대(1942)
  - 3.2. 과학문명/이동의 전시(展示) : 매신교화선전차대(1943~45)
4. 전쟁과 웃음, 전복과 순응의 길항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시체제기 제국에 의해 동원되었던 만담부대와 만담가들에 대한 연구이다. 만담부대를 기획한 데에는 각종 이동위문연예대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농촌과 광산 일대의 생산전사와 황군장병, 만주 개척민 등을 대상으로 위문과 감사, 명랑건전한 오락의 보급을 목적으로 삼은 이동위문연예대는 동원과 교화의 목적이 강했던 만담부대가 취해야 할 전술과 전략의 모범이 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만담부대는 '야담만담부대'와 '매신교화선전차대'이다. 야담과 만담이 특화된 이 부대는 '징병제 홍보를 위한 미디어'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각 지방을 순회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매신교화선전차대'는 제국 일본의 근대적 과학기술문명이 집약된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제국 권위를 전시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신불출 이후 등장한 신진 만담가들이 설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이 아닌 만담부대였고, 이렇게 동원된 만담과 만담가들은 충실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식민지 조선의 곳곳에 발신하였다. 이렇게 '동원된 미디어'로 소모된 만담과 만담가는 그 고유의 장르미학을 구축할 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공연예술계에 독자적인 영역 확장과 심화에 적극적으로 못하였고, 텔레비전 등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코미디와 개그로 흡수되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A00419).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주제어 : 김백소, 김봉, 김윤심, 동원린 미디어, 만담, 만담가, 신불출, 손일평, 신정연, 아담만담부대, 매신교화선전차대, 이동연예대, 이화, 조하소

## 1. 만담, 웃음과 선동 사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근대적 공연예술로 공연 장(場)에 등장한 만담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을 고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신불출(申不出)이다. 유성기 음반에 실린 <익살맞은 대머리>(1933)의 선풍적 인기와 함께 「웅변과 만담」<sup>1)</sup>이라는 글을 통해 이른바 “조선 만담의 창시자”<sup>2)</sup>로 치칭되는 신불출은 만담이라는 장르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였고, 유성기 음반과 극장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미디어와 만담의 접합, 그리고 만담의 장르미학을 적극적으로 꾀한 인물이다. 기존 연구에서 만담보다는 신불출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곧 신불출이 문체적 인간이며, 만담은 물론 근대 공연예술사에서 그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sup>3)</sup> 언변 좋고 잘생기기까지 한 신불출이라는 걸출한 스타로 인해 만담은 공연예술의 자장에 놀라운 속도로 진입하였고, 1930년대 중 후반에는 무수한 만담대회로 그 흥행을 이어나간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신불출이 스타 만담가라고 해도 그가 소화할

1) 신불출, 「웅변과 만담」, 『삼천리』, 1935.6.

2) 『매일신보』, 1943.2.25.

3) 신불출과 만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희, 「신불출의 문예활동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12권, 국문학회, 2004.

박영정, 「만담 장르의 형성과정과 신불출」, 『웃음문화』 제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박영정, 「신불출-세상을 어루만지는 ‘말의 예술」, 『한국현대연극 100년-인물연구사』, 연극과인간, 2009.

엄현섭, 「신불출 대중문예론 연구」, 『비교한국학』 제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이승희, 「배우 신불출, 웃음의 정치」, 『한국극예술연구』 제3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천정환, 「식민지 조선인의 웃음-『삼천리』 소재 소화와 신불출 만담의 경우」, 『역사와 문화』 제18호, 문화사학회, 2009.

수 있는 공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는 물론 극장 공연과 만담 대회 등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만담가들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신불출의 뒤를 이은 만담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손일평(孫一平), 김윤심(金允心), 나품심(羅品心), 조하소(趙何笑), 서다출(徐多出) 등이 이른바 ‘포스트-신불출’에 해당하는 만담가들이다<sup>4)</sup>. 언론에 이름을 알리며 풍성하게 만담의 범주를 확장하던 이들은 신불출 같은 스타만담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전시체제기에 따른 국민총동원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계 조직개편과 제도의 변화라는 제국의 논리에 의해 공연예술계가 기형적 양상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이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이 아니라 제국에 의해 강제 동원된 각종 이동위문연예대와 만담부대였다. 신불출과 몇몇 소수의 만담가를 제외하고는 만담대회나 만담의 공연 자체가 가요와 무용 등 다른 공연물과 혼종의 구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독자성이 그다지 강조되는 편이 아니었는데,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오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순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강제된 ‘동원의 논리’ 속에서 만담은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연예술로 부각된 것이다. 이는 총독부 관할로 문화조직을 개편하면서 ‘동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 하에, 만담 자체의 중요 속성인 웃음이 ‘국민오락’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소수의 만담가로 구성된 뛰어난 기동성이 ‘순화’와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신불출이 「웅변과 만담」을 통해 만담의 정치적 의도를 언표한 바, 신불출의 만담은 그저 웃긴 이야기가 아닌 “웃는 웅변”<sup>5)</sup>으로서 적극

4) 본격적인 총동원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들이 대거 참여한 대표적인 공연이 1940년 8월 부민관에서 공연된 ‘남량폭소대회’다. 여기에는 신불출, 김윤심, 박천복, 황순자 등이 만담가로 참여했으며, 신정연과 유추강은 야담으로 참가했다. 『매일신보』, 1940.8.21.

5) 신불출 만담의 정치성에 주목한 이승희는 신불출의 활동 전반을 고찰하면서 신불출에게 만담은 “조선말로 하는 ‘웃는 웅변’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승희, 「배우 신불

적인 풍자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웃음 자체가 지닌 정치성 때문이다. “코미디는 그것이 공연·발화되는 바로 ‘지금·여기’(또는 바로 ‘그때·거기’)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수용자의 욕망에 제대로 근거하지 않으면 전혀 웃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웃음은 ‘정치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사이에서 진동하며 생산되기에, 일상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가능하게”<sup>6)</sup> 하는 속성이 웃음을 절대적 원리로 삼는 만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웃음에 내재한 정치성이 그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권력과 지배계급 혹은 사회의 제반 모순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조롱이 작동하고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전복과 저항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생산적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권력과 지배논리의 입장에서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무지몽매와 무기력, 비겁함과 나약함을 특화시키고 교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웃음은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시키는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통치수단이 되는 것이다. 웃음의 정치성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이 역학이 식민지 조선의 만담이 맞닥뜨린 현실이자 운명이었다. 즉, 신불출에 의해 공연예술계에 “어느 무엇보다도 그 諧謔性(humour)의 縱橫無盡함과 그 諷刺性(irony)의 自由奔放한 점을 특징으로 삼는 그야말로 불갈고 칼같은”<sup>7)</sup> 새로운 예술로 모습을 드러낸 만담이 제국의 논리에 동원되면서 그 칼의 끝이 식민지 조선을 향하게 되는 역전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만담의 이러한 면모는 비단 식민지 조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신불출이 직접 언급한 만담의 고향인 일본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

출, 웃음의 정치», 『한국극예술연구』 제3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40면.

6) 천정환, 「식민지 조선인의 웃음-『삼천리』 소재 소화와 신불출 만담의 경우」, 『역사와 문화』 제18호, 문화사학회, 2009, 9~10면.

7) 신불출, 「웅변과 만담」, 『삼천리』, 1935.6.

다. 1920~30년대 ‘모던만자이’를 분석하고 있는 요네야마 리사의 연구를 보면, 1910~20년대의 일명 ‘모던만자이’는 재래의 민중오락인 만자이와 달리 일본 모더니즘의 성격을 적극 반영하여 신흥 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전복적 파괴성이나 의외성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1930년대로 접어들어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이후 총력전 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와 손을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만자이는 “시국에 대한 관객의 동의를 형성하여 오히려 자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쟁협력에 참가하는 균질적인 국민주체를 만들어” 내는 “국책 선전의 매체이자 파시즘 국가장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제국 일본과 모든 것이 연동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 만담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생적 오락으로 전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일본에 비해 신생 공연예술<sup>9)</sup>로 등장한 식민지 조선의 만담은 격변하는 정세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제국의 동원논리와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전유된 공연예술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 시기, 제국의 동원논리에 따라 이동하는 ‘인간-

8) 요네야마 리사, 「오락·유머·근대·모던만자이의 웃음과 폭력」, 『확장하는 모더니티』 (연구공간 수요+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역), 소명출판, 2007. 154~173면.

9) 박영정은 만담의 장르형성과정을 고찰하면서 공연예술로서의 근원을 1920년대 ‘야담대회’에서 찾고 있다. 그 근거로 둘의 공연형식이 비슷하며, 1920년대 후반~30년대 초에 등장하는 ‘야담만담대회’를 통해 장르의 친연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박영정, 「만담 장르의 형성과정과 신불출」, 『웃음문화』 제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이 등장한 것에 대한 내재적 근거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신불출에 의해 본격 공연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만담은 야담대회와는 공연형식이나 레퍼토리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야담만담대회의 경우 이 시기 연예물의 복합적 결합과 연행논리의 일반적 속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기에 그 유사성은 설명될 수 있으나 만담 장르의 근원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야담대회의 구체적 면모에 대해서는 배선의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과 야담대회」(『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를 참고할 것.) 이 논문은 만담의 장르형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신불출의 의도와 목적을 중요 근거로 삼아 만담을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공연예술로 전제한다.

미디어<sup>10)</sup>가 된 ‘포스트·신불출로 호명될 수 있는 만담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체적 활동 양상을 면밀히 추적해보고자 한다.<sup>11)</sup> 신불출처럼 스타만담가로서의 명성을 얻지 못한 채 순회하는 이동위문연예대와 만담부대의 ‘부대원’이 된 이들의 활동은 전시체제기 선동의 목적 하에 웃음을 무기로 삼은 식민지 조선의 만담의 공연 현장과 공연예술인의 궤적을 복원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만담부대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시기 이동위문연예대의 활동 양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동위문연예대는 비록 이동과 선전, 선동의 논리 등 많은 것들을 만담부대와 공유하고 있었지만 동원의 강제성이 만담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활동의 공과가 만담부대의 출현을 적극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sup>12)</sup> 이 논문에

10) 이 용어는 이화진의 논문에서 베르너 파울슈티히의 개념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인간의 몸이 매개가 된 것에 대한 명명으로 연구자들에게도 일정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간과 미디어 사이에 ‘—’를 표기한 것은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의도이다. 이화진, 「일제 말기 이동극단 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한계」, 『한국학연구』 제30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169면.

11) ‘이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주목할 것은 이화진의 연구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이동연극의 발상과 기획에 대한 컨텍스트적 맥락을 고찰한 후, 구체적인 활동 양상을 고찰하면서 이동연극이 지닌 성격과 한계가 ‘이동문화운동’의 일방향성을 띄며 “관대한 시혜”의 입장을 견지한 구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화진, 「전시기 오락담론과 이동연극」, 『상허학보』 제23집, 상허학회, 2008; 「일제 말기 이동극단 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한계」, 『한국학연구』 제30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이외에도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기 이동연극 연구 —이동연극 제1대와 극단 현대극장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등이 있으며, 일본 이동연극을 연구한 홍선영의 연구는 일본이동극단연맹의 1940년대 전반기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으며, 경복궁에서 공연한 <살로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순행을 고찰하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 홍선영, 「전시기 이동연극과 ‘국민문화운동’ : 일본 이동연극연맹(1941.6~1945.8)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45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제국의 문화영유와 외지순행 —天勝一座의 <살로메> 景福宮 공연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3권, 일본근대학회, 2011.

12) 위문연예대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김호연의 논문인데, 여기서는 다양한 위문대의 활동을 일괄하면서 “공연형태는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레퍼토리를”(53면) 갖는 특징을 정리하였고, 단체의 후원 양상과 악극단 위주의 위문대 조직도 고찰하고 있다. 김호연, 「일제 강점 후기 연극 제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과

서 다를 만담부대는 두 개로, 야담가 신정언이 이끈 ‘야담만담부대(野談漫談部隊)’와 개조한 자동차를 이용한 ‘매신교화선전차대(每新教化宣傳車隊)’이다. 두 부대 모두 이동하는 인간·미디어의 속성을 공유하고 공연의 구성에서도 야담과 적극적으로 결속되어 있지만, 만담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진 만담가들의 활동이 특화되고 강조된 것이 이 두 부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신교화선전차대’의 경우 ‘야담만담부대’에 비해 그 구체적 활동이 기존 연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sup>13)</sup> 이 논문의 본론인 만담부대의 활동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2. 위문·감사·독려의 시대 이동위문연예대의 위치

“전시체제가 연극통제는 시스템에 의한 동원정치”<sup>14)</sup>였던 만큼 연극을

---

학연구』 제30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위문대, 이동연예대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이 논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그 다양한 속성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13) 이화진은 이동연극의 견고한 장르적 특징에 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장르로 야담과 만담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두 조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이화진, 앞의 논문, 2013.) 실상 ‘야담만담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공임순에 의해 진행되었다(『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앨피, 2013). 이 책에서는 식민지 시기 야담을 대상으로 근대 대중매체와 결합한 현대적 오락물도 야담이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야담이 프로파간다의 미디어가 되는 양상까지 고찰하고 있는데, ‘야담만담부대는 3장 3절 “찾아가는 국책의 ‘메신저’, 야담가의 체제 동원과 협력의 양상’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부대 구성의 이유와 이동의 경로, 이 부대의 속성과 효과를 이 책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는 대신 만담가와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4) 이승희, 『전시체제가 연극통제시스템의 동원정치와 그 효과』,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232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제시스템의 안과 밖에 누수지점들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면서 “연극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그것은 무엇보다도—식민지 조선인에게 있어 일본은 의사국가였지만—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시스템의 직접적인 경험 그 자체였으며, 이로부터 ‘국가’에 대한 감각이 생성되었다”(233면)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국가 감각은 위문과 위로, 징용징병을 목적으로 한 이동위문연예대와 만

비슷한 모든 공연예술 조직들은 통제의 시스템으로 운용이 된다. 조선연극협회, 조선연예협회, 조선연극문화협회 등등의 무수한 조직들이 결성된 맥락과 활동의 양상들이 총동원에 의한 통제 시스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들 조직에 비해 이동위문연예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조직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보인다. 순회와 위문을 위해 조직된 각종 이동위문연예대의 명분은 매우 다양하다. 광산어촌에서 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더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산간벽촌에 사는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의 매체가 되어야 하고, 전선에서 헌신하는 황군과 그 군인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러한 전시체제가 총동원의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반도 전체가 활동의 공간이 되었고, 식민지 조선인 모두가 위문과 감사, 독려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전한 오락이라는 미명 하에 이동위문연예대의 모든 구성원은 움직이는 ‘인간-미디어’가 되어야 했다.

다음의 표는 1941년부터 1945년 8월까지 『매일신보』에 실린 이동위문연예대 관련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그 활동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sup>16)</sup>. 이

답부대 역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 15) 전시체제가 통제와 동원의 시스템을 본격화한 것이 ‘조선예능동원본부’이다. 이 조직은 1944년 10월에 총독부 정보과에서 “이동연극 연예 창극단의 위문공연을 급후일체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매일신보』, 1944.10.12) 이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면, 내지에 위문대를 파견한다는 것(1944.12.13), 이동극단 ‘문화좌’의 창립공연(송영 작, 나용 연출, <고향에 보내는 편지>)을 후원한 것(1945.3.4), 이동극단의 6월 프로그램을 결정하였으니 각 극단은 지방순회에 들어간다는 것(1945.5.31), 사리사육을 채운 네 개 단체(동아연예정신대, 金吉子이동극단, 厚生예능반, 朝興연예반)를 해산한다는 것(1945.6.27) 등이다. 제한적인 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매 일 이동극단의 조직에 관여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이동의 지역이 내지까지 포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것과 관계 조직임에도 그 목적에서 이탈한 단체들도 있어서 적극적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 등이다. 아쉬운 것은 예능동원본부에 소속된 예능인과 단체가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을 아직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16)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식민지 언론들이 모두 폐간된 상황에서, 비록 일본 제국의 논리를 전면화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방방곡곡 소식을 전한

표를 중심으로 위문연예대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날짜	위문대 명칭	주최 및 후원	목적	참여인원	지역	구성
1941 5.	광업 전사격려 위문연예대	조선광산연맹, 경 무국 연맹문화부	광업전사를 격려	16명	평남	가요, 만 담, 촌극
1941 5.	연예폭소대	조선연예협회	재래식 흥행이 아 닌 명량한 연예.	손일평 외 14 명	西鮮지 방	만담 등
1941 9.	황군장병 위문대	조선군인원호회	황군장병들의 수 고에 감사	3개반, 30명	北中支	
1942 7.	황군 위문연예대	한준호, 마쓰바라 등 경성 계계인사	전선의 황군부대 를 위문하고자		만주	기합술, 역예
1942 9.	개척민 위문연예대	만주연예협회 후원	식량증산에 매진 하는 재만조선인 개척민을 위문	30명 (낮 황군위문, 밤 일반공개)	만주	
1943 3.	농촌감사 위문연예대 <sup>17)</sup>	경성부, 경기도 당국	“藝道報國”. 생산 전사에게 감사	남녀 40명. 4 반. <sup>18)</sup> 주야로 공연.	경성	가 요 , 만 담 , 역 기 , 영화 <sup>19)</sup>
1943 7.	보국연예대	연예관主 西原敏雄	일반의 시국인식 철저와 결전결의 를 다지며 출정군 인가족과 산업전 사들을 위안	15명.		국 민 극 <sup>20)</sup> 외 에 가요, 무용 등
1943 8.	만주개척민 위문연예대	만주개척총국 문 화위담회, 만주연 예협회 주최/조선 연예문화협회, 조 선군보도부 후원	만주개척민 위안	대장 李福本 등		紙芝居, 경음악, 경연극
1943 9.	군인 위문연예대	상이군인회조선 본부, 경기도 주 최	육해군 병원의 상 병병 또는 귀환 한 상이군인 기		경기	

매체는 『매일신보』로, 이동위문연예대를 포함한 1940년~1945년 사이의 자료를 『매일신보』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다보니 그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풍성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이후 작업에서 다각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17) 이 연예대는 순회를 마치고 돌아와 “농민들의 식량증산에 대한 결의를 다시 주민들

			타 군대군인유가족 위문			
1943.10.	위문격려연예대	『매일신보』, 조선광산연맹, 조선연극문화협회	산업전사 노고에 감사, 명랑건전한 오락.	대장 梅原, 김윤심의 만담, 독창, 합창 등	강원, 함경, 평안, 황해	음악, 만담, 촌극
1944.2.	鎭海위문연예대	『매일신보』	산업전사 격려와 분발	대장 陳田	진해	야담, 재담, 만담, 가요
1944.11.	반도생산전사 위문대	국민총력조선연맹, 내지 광산통제회, 일본이동연극연맹 공동주최	내지에 있는 반도 산업전사들의 수고를 위로하고자	내지 연예인 6명, 기생 4명.	북해도, 구주	강담 라쿠코, 만담, 가요, 로코쿠, 무용
1944.11.	郡직원연예대	포천군 군직원	군인가족과 농민에게 국가산업에 순응할 일과 생산증강에 매진할 것을 기대	인솔 군총력계 安東, 10명	포천	희극 재담과 연극 <sup>21)</sup> 등
1945.1.	應徵가족위문연예대	조선근로동원원호회	다채로운 근로원 호운동 일환	예능위문반, 국민음악단 등 4개반	경상, 전라	
1945.3.	산업전사위문연예대	국민총력 조선연맹, 조선근로동원원호회 주최/육해군성 후생성 후원	내지에 있는 반도 산업전사들의 수고를 위로하고자	인솔 조선연맹 후지무라 참사. 반도여인부대(경성안의 전 기생들)	오까야마, 오사카, 북해도	
1945.4.	위문연예대	안성군	근로동원과 노무원호사업의 일환	대장 田路 외 13명	안성	
1945.8.	위문연예대	『매일신보』 주최	탄광노동자 위문	15명	회령, 弓心	

<표> \*1941~1945년 8월까지 조직·활동한 이동위문연예대 목록(『매일신보』)

에게 전달하여 도시와 농촌이 한덩이가 되어 이 결전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민관에서 보고공연을 하려 했으나 경찰당국의 불허방침으로 중지하였다. 경찰당국이 밝힌 이유는 출연자들이 조선연극문화협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일신보』, 1943.3.26.

18) 1반(수원방면) : 반장 소야사부 총력계장, 전방일, 박창원(대화만담), 고준성(재담), 이연순(가요)

2반 : 반장 좌등 부민관장, 산본윤성, 홍천풍작, 김재환, 평소태산

3반(개성방면) : 반장 이등 부호원, 손일평(만담), 박춘복(재담), 서다출(만담), 나품삼(만담)

먼저 이동위문연예대를 조직한 주최와 그 목적을 보면, 주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직과 기관으로, 조선연예협회, 조선연극문화협회와 같은 문화조직을 비롯하여 상이군인회, 조선군인원호회, 조선근로동원원호회, 조선광산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의 관제 조직, 이동하는 지역의 도와 군 당국, 나아가 조선총독부 경무국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주최가 되는 경우로, 1942년 황군위문연예대는 경성의 재계 인사인 한준호와 마쓰바라 등이 주최가 되었고<sup>22)</sup>, 1943년 보국연예대는 연예관의 극장주 西原敏雄이 위문연예대를 꾸렸다<sup>23)</sup>. 이렇듯 위문연예대의 주최가 다양한 것은 총동원을 수행하는 데에 일본 제국과 그 말단조직까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개인이 모두 나섰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동위문연예대를 조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이동위문연예대 조직의 명분과 운영을 위한 얼마간의 자본이 확보된다면 누구나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최의 특징은 공연레퍼토리는 물론 참가한 이동위문연예대원들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동위문연예대의 일반적인 공연레퍼토리는 가요, 야담, 만담, 재담, 촌극, 영화, 무용 등을 기본으로 하는데, 부대원의 구성에 따라 이들 중 몇 가지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4반(양평방면) : 반장 목호상공회 의소직원, 이경호(기술), 이세화, 이진홍, 문채홍(가요) 『매일신보』, 1943.2.27.

19) 안내 기사에는 만담영화 <조희광대>를 상영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매일신보』, 1943.2.23.

20) 여기서 국민극에 명단을 올린 것은 <백장미>, <지원병의 희망>, <스파이의 최후>이다. 이 작품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매일신보』, 1943.7.8.

21) 이 위문대의 기사에서는 “희극재담, 새출발(2막), 국군의 애정(3막), 미신타파(2막)”의 공연레퍼토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 역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매일신보』, 1944.11.28.

22) 『매일신보』, 1942.7.1.

23) 『매일신보』, 1943.7.8.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종이연극(紙芝居)<sup>24)</sup>, 차력(기합술, 역예, 역기) 등의 볼거리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1942년 경성의 부호들은 만주의 황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해 ‘기합술(氣合術)’과 ‘역예(力藝)’로 위문대의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기합술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가슴 위로 자동차를 보내는 것”<sup>25)</sup> 등 지금의 차력에 해당하는 기예이다. 또한 1944년 11월의 군(郡)직원연예대는 포천군이 주최로, 소속 군 직원들로 위문연예대를 꾸렸다. 레퍼토리 구성은 ‘희극재담과 연극’ 등 일반적이지만 그것을 연행하는 인물들이 모두 아마추어인 군 직원들이었는데, “배우를 압도할만한 연예”로, “주연급인 구니모토(國本)씨의 희극재담”이 돋보였다고 자평하고 있다<sup>26)</sup>. 이 사례들은 이동위문연예대가 주최 측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연레퍼토리를 구성하였으며, 동원된 구성원 역시 전문연예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sup>27)</sup>.

이동위문연예대의 목적은 ①황군장병/개척민 위문 ②생산/산업전사 감사와 독려 ③시국인식 철저와 결전 결의 ④명랑건전한 오락으로 정리된다. 전시체제가 총동원의 이데올로기가 적극 투사된 목적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명랑건전한 오락’이다. 이것을 중요한 명분과 목적으로 내세운

24) ‘紙芝居’는 우리말로 ‘종이연극’, 일본어로는 ‘카미시바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이야기를 여러 장의 종이에 연속적으로 그려 넣어 그것을 관객들에게 작은 틀 안에 넣고 차례대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는 공연이다. 카미시바이의 공연특징과 일제말 카미시바이의 활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경연의 「일제말기 ‘이동연극’의 실연(實演)과 제국의 이벤트」(한국극예술학회 2014년 제3차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7.18)를 참고할 것.

25) 『매일신보』, 1942.7.1.

26) 『매일신보』, 1944.11.28.

27) 기사로 확인된 위문연예대 외에도 다수의 군소연예대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활동했음을 방증하는 기사가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비전문가들의 미숙함에 대한 불만이다. 징용에 응한 군인들(應徵士)의 숙소를 방문해 그들의 실태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낸 기사에서 한 군인은 3~4차례 위문연예단이 다녀갔는데, 3류 극단 아니면 매우 서툰 ‘시로도’ 같은 단체였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미안하지만이런 것은 보내지 말고 아프로는 보잘것있는 연예단체가 차져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매일신보』, 1944.9.29.

것은 공교롭게도 조선연예협회와 조선연극문화협회가 주최한 연예대인데, 1941년 조선연예협회의 ‘연예폭소대’는 만담가 손일평이 이끄는 부대로, 기생의 가무와 같은 재래의 흥행이 아닌 만담과 야담 등의 “명랑한 연예”를 공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대를 필두로 “압흐로도계속하여 연예인들을 동원시켜 산업전사들을정신적으로 위안시킬 방침”<sup>28)</sup>을 내세우고 있어 흥행 전문가들이 대거 이동위문연예대에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29)</sup> 1943년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위문격려연예대’는 만담가 김윤심(金允心)<sup>30)</sup>을 대표로 내세운 부대로, “명랑건전

28) 『매일신보』, 1941.5.16.

29)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 연예대에만 동원된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혹은 전시의 목적으로 연예인과 문인을 포함한 문화인들을 근로봉사에도 적극 동원했는데, 1941년의 ‘문화인성초부대(文化人聖敎部隊)’가 대표적이다. 문화인들을 근로봉사로 동원한 명분은 다음과 같다. “내선일체의 발상지로서 一천수백년이래 그윽한향기를 떨쳐오고있는 성지(聖地) 부여(夫餘)에는 내선일체의 크나큰정신적전당(殿堂)으로서 관폐대사부여신궁(官幣大社夫餘神宮)이 어창건되고있는터로 각지방에서는 근로봉사단이 그곳에서 성추(聖鋤)를들고 귀한땀을흘러가며 어조영공사에 큰목을” 하고 있기에 문화인들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이다. 이들은 8일 오전 11시 46분 기차를 타고 부여로 가서 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근로봉사를 한 후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밤 11시 4분에 경성에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소속 단체와 인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연극협회 牧山瑞求 岸本寬 崔象德 柳致眞 朴珍 金泰潤 \*조선문인협회 金東煥 鄭寅燮 李石薰 咸大勳 芳村香道 騰山雄天 杉本長夫 \*조선연예협회 靑山哲 豊川□方 三木向 李哲源 李扶風 韓昌先 \*조선담우회 玄哲 申不出 張志浩 \*조선영화인협회 安田辰雄 安夕影 李圭煥 徐光濟, 金田廣 李源鎔 \*조선음악협회 金當. 처음 명단에는 ‘조선흥행협회’도 있었으나 실제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매일신보』, 1941.2.7.



문화인성초부대,  
『매일신보』, 1941.2.9.

30) 김윤심은 신불출 이후 독자적으로 이름을 내세우고 만담공연을 할 만큼 주목받는 여성 만담가이다. “성악과 서화에 천재”라는 호평을 받는 그녀는 <춘향전>을 “노래와 익살로 다시 빚어 한 가지 만담으로” 각색한 <新裝 춘향>을 공연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만담 공연에 노래와 연주까지 곁들이는 다채로운 공연레퍼토리를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만능재주꾼 만담가였다. 『동아일보』, 1938.2.9./『매일신보』, 1940.8.21. 김윤심에 대한 언급은 반재식의 『만담 백년사』(백중당, 2000.)에서만 발견된다. 반재식은 신불출을 잇는 만담가로 김윤심을 꼽았고, 그녀의 행적과 작품 등을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김윤심은 1914년 황해도에서 태어

한 오락'을 산업전사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1)</sup>. 이 사례들은 연예와 관련된 조직이 주최하는 연예대이기 때문에 전문 만담가들을 내세워 '오락'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은 동원과 교화의 목적이 뚜렷한 만담부대가 취해야 할 전술과 방법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랑의 정체가 웃음을 전제한 정서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연예술 장르 중에서 (야담)만담이 특화된 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근거이자 계기가 된 셈이다.

이동위문연예대의 규모는 많게는 40명, 적게는 10여 명에 이르는데, 소속 대원이 많은 경우는 이들이 모두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순회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 따라 인원을 분반하여 각 반별로 이동하도록 운영하였다<sup>32)</sup>. 대체로 한 개 반이 5~10여 명 내외로 구성된 것을 보면 이동과 공연을 수행하는 데에 최적화된 인원이 최대 10여 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살펴 볼 '야담만담부대'의 부대원이 4명, '매신교회선전차대'의 부대원이 10명 미만인 것도 이러한 효율성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위문연예대의 이동 지역은 식민지 조선 전체는 물론이고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는 내지인 일본 본토로까지 확장된다<sup>33)</sup>. 특히 전시체제가

났고, 1931년 신무대에서 극단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 만담가로 나서게 된다. 주로 독만담을 진행했으나, 1950년대에는 대화만담을 하면서 1960년대까지 만담의 명맥을 확고히 했다. 1960년대 말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6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정월노인요양원에서 발견되었고, 1998년 사망하였다.(288~352면) 김윤심의 활동과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를 빌어 심도깊게 살펴보아야 할 터이다.

31) 『매일신보』, 1943.11.5.

32) '황군장병위문대(30명, 1941), '개척민위문연예대(30명, 1942), '농촌감사위문연예대(40명, 1943), '웅장가족위문연예대(4개 반, 1945) 등.

33) 이 시기보다 앞선 1942년 2월에는 조선담우협회 소속 만담가 손일평이 인솔자가 되어 유추강, 박천복, 나품심이 일본의 동경과 북해도 등으로 순회하였다. 이는 위문연예대 뿐만 아니라 각종의 연예조직이 일본 본토로 순연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매일신보』, 1942.2.27.

가 막바지에 달한 1944년과 1945년에는 일본 본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위문을 목적으로 한 위문연예대가 꾸려지는데, 1944년 ‘반도생산전사위문대’와 1945년 ‘산업전사위문연예대’가 그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최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이동연극동맹과 육해군성 후생성이 각각 담당하는 이 위문연예대의 특이한 점은 조선에서 파견된 인물이 모두 여성, 특히 기생이라는 점이다. 일본 이동연극동맹과 공동주최한 경우는 라쿠코와 로교쿠 등 일본의 예능을 담당하는 일본 연예인 6명과 조선의 기생 4명이 한 팀을 이루었고, 후생성이 후원하는 연예대는 경성의 기생들로 구성된 ‘반도여인부대’가 조선인이 많이 있는 북해도와 오카야마 등을 순회하였다. 구체적인 레퍼토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향을 떠나 일본 본토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들의 위로와 위안을 조선의 기생들이 담당하는 것은 ‘명랑건전한 오락의 웃음이 창출하는 동시대적 공감대보다는 ‘조선적인 것’의 연행을 통해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향수를 달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전시체제기 이동위문연예대가 실천한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만담부대에서는 더욱 분명한 명분과 목표가 되었고, ‘명랑건전한 오락’의 속성은 야담만담의 장르로 특화되면서 더욱 강조된 양상으로 변화된다. 전쟁 막바지, 제국 일본은 위안과 위문의 우회로가 아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책 홍보와 동원의 욕망을 만담부대의 웃음에 실어 반도 전체를 잠식해 나간 것이다.

### 3. 제국과 미디어 결탁의 총아, 동원된 미디어로서의 만담부대

#### 3.1. 인간-미디어의 효율 : 야담만담부대(1942)

『매일신보』에서는 야담만담부대를 홍보하면서 그 결성 취지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땅 二천四백만민중은 지금 오로지 대동아전의 필승을위하여서만 모든노력과 활동을 총결집(結集)시켜야 하겠고 광영스러운 징병제(徵兵制)를 추호의 유감도업시 마저야할 가장중대한 시기에처하여잇슴은 이제새삼스러히더말할필요도 업거니와 이 취지의 철저한인식과 실천이야말로 二천四백만의 八割이란수를 차지하고잇는 반도농민들을 잠시라도 이저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제 본사에서 농민들의 시국인식과 징병제에대한 준비를 널리 고취시키고저 조선군보도부(朝鮮軍報道部)와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의 절대적인 후원하에 야담만담반(野談漫談班)을 조직하여가지고 전선농촌을속속드리 순회하며 미력이나마 당국의 농촌개발운동에 一조가되게하기로되었다. 본사에서 이번 행하는 야담만담반의 전선동원은 신문잡지나「라디오」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농촌의 할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촌락과 산간까지 속속드리 찾고 마음과마음을 통하는총력운동을 일으키려함에잇서 오는二十일 경기도의 의정부를 첫출발로하여 명十八년三月 중순까지 실로 반개년이란 시일에걸치어 十三도 도합 一백五十九군부를 일일이 순방하기로 되었다. (밀줄-인용자)<sup>34)</sup>

위 인용문을 통해 두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동위문연예대와 달리 야담만담부대는 ‘동원’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부대를 ‘움직이는 미디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신보』가 주최이기 때문에 야담만담부대에 대한 기사는 행사 보고와 순회지역 및 일정공지의 내용으로 자주 게재되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광영스러운 징병제 취지를 보급”하려는 야담만담부대의 목적이다. 위안이나 위문이 아니라 징병제를 널리 홍보한다는 것은 곧

34) 『매일신보』, 1942.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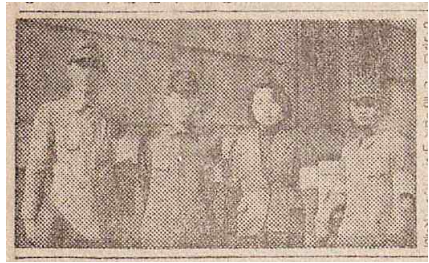
야담만담부대 자체가 총동원 체제의 선전과 교화의 메가폰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순회와 이동의 필요에 대해서는 산간촌락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라디오라는 소리매체 등 근대적 미디어들에 대해 소외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야담만담부대의 정체가 미디어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즉, 신문잡지가 배달될 수 없는 곳, 라디오의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시국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제국의 동원정책이 무엇인지 등 급박한 현안의 정보에 대한 접속이 미디어의 부재로 인해 지연되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려 새롭게 기획된 미디어가 야담만담부대인 것이다. 기계나 기술, 과학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려운 곳이라도 인간은 갈 수 있고, 또한 눈앞에서 직접 움직이며 말하는 인간의 몸은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이다. 인간의 수행성과 기동성, 직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야담만담부대는 총동원의 이데올로기를 몸으로 전달하는 인간-미디어였던 것이다. 거기에,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목한 것은 웃음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공유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웃음의 효과는 그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연대감과 동질성을 창출하는데, 이에 따라 “웃음의 오락적 코드는 징병제 취지라는 어찌 보면 무거운 시국색을 완화시켜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체”<sup>35)</sup>로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 야담과 만담이라는 웃음의 장르를 특화시킨 이동부대를 기획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야담만담부대는 징병제 보급과 인식 확장을 위한 메가폰으로, 웃음을 중요 방법으로 삼은 이동하는 인간-미디어였던 것이다.

야담만담부대는 『매일신보』 주최, 조선군 보도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후원 하에 결성되었다.<sup>36)</sup> 1942년 10월 20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복선 지방

35) 공임순, 앞의 책, 422면.

36) 야담만담부대 결성의 실제 계기는 조선군 보도국의 기획을 직접 전달한 이광수였다. 8월 29일 조선담우협회로 찾아온 이광수는 징병제 취지를 농산어촌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정언의 야담으로 그것을 알리려 한다는 군령을 전하며 신정언에게 하루바삐 떠날 수 있도록 종용했다.(신정언, 「징병취지

을 순회한 후 잠시 경성에서 휴식을 취하고<sup>37)</sup> 1943년 1월에는 남선 지방으로 순회를 하여 1943년 3월 12일 강화(공식적인 종료일은 3월 20일이다)를 마지막으로 160개소를 이동하는 5개월에 걸친 긴 일정을 마쳤다. 야담만담부대의 소요 경비는 총력연맹



야담만담부대원 경성역 출발 직전.  
왼쪽부터 신정언, 김백소, 김봉, 이화.  
『매일신보』, 1942.10.21.

의 각 군연맹에서 부담하거나 각 도의 도회의원 혹은 지역의 유지가 각출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며,<sup>38)</sup> 부대가 도착하면 그 지역의 군수와 관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주로 저녁에 연행하였는데, 공연의 개최 선언과 사회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군수가 담당하였다<sup>39)</sup>. 부대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담당하는 분야를 구분하였는데, 대장 격인 신정언(申鼎言)은 <국민의 최고의 영예>라는 야담을 공연했고, 김백소(金白笑)는 <육일승천(旭日昇天)>이라는 단독만담을, 이화(李和)와 김봉(金峰)은 <총후(銃後)의 남녀>라는 대화만담을 공연했다<sup>40)</sup>. 이들의 이동경로와 행

야담만담행각, 『매일신보』, 1943.1.11) 야담만담부대의 결성에 이광수가 적극 개입한 것에 대해 공임순은 “군보도부에 의해 전시 선전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차출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역으로 군보도부의 명령을 징병제의 동원 대상이 될 농촌인 구에게 대신 전달한다는 이른바 동원 주체가 되는 모순적 자기 위상과 직결된 몇 겹의 명령 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공임순, 위의 책, 412면.

37) 경성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야담만담부대 부대원은 경성부민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공연을 하였으니 5개월에 걸친 순회 일정에서 이들이 제대로 쉬는 때는 거의 없었다. 『매일신보』, 1943.1.5.

38) 『매일신보』, 1942.10.22.

39) 야담만담부대의 경기도 일대 순회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의정부에서는 모리아마 군수, 연천에서는 고이스미 군수, 철원에서는 다까사까 군수가 사회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매일신보』, 1942.10.22.

40) 『매일신보』, 1942.10.18 / 1942.10.25. 이들이 공연한 <총후의 남녀>는 ‘국어(=일본어) 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만담을 들은 관객들은 국어의 상용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적은 신정언이 「징병취지(徵兵趣旨) 야담만담행각(野談漫談行脚)」<sup>41)</sup>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에 연재한 글에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었다<sup>42)</sup>.

야담만담부대의 부대원 중에서 스타야담가인 신정언(본명:申翔雨)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신진 만담가들이다. 우선 김백소를 살펴보면, 본명은 제일마(桂一馬)<sup>43)</sup>로, 최초로 확인되는 기록은 강릉극장 지배인으로서의 활동이다. 1938년 강릉 장날에 부하 악대를 동원하여 방공방첩사상 선전과 ‘카미시바이’ 공연을 진행한 것<sup>44)</sup>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공연예술계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극장 지배인 시절에도 예명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예명에 웃음을 강조한 ‘笑’를 넣고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카미시바이’ 등을 공연한 점, 거기에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방공방첩의 사상 선전을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선전과 선동에 효과적인 공연예술 장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강릉에서 경성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계기는 확실치 않으나 1942년 5월에 진행된 조선담우협회의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sup>45)</sup>을 보면 김백소의 관심은 야담과 만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정언에 의해 급하게 꾸려진 야담만담부대에 김백소가 참여하게 된 것도 조선담우협회 이사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sup>46)</sup>. 만담 중에서도 단독만담은 대체로 신불출처럼 화술과 언

41) 이 글은 총 109회로, 1943년 1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

42) 야담만담부대는 물론, 기존의 이동문화운동은 다양한 기록과 보고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이동극단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헌신적인 ‘지역봉공’을 전시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동반된다면 그 파급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입증해야 하는 자리”로 기능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탈중심화가 아니라 중앙 집중적인 문화의 확산과 수렴으로 귀착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화진, 앞의 논문, 2013, 176~177면.

43) 『매일신보』, 1942.10.18.

44) 『江陵金白笑氏美學』, 『매일신보』, 1938.11.15.

45) 『매일신보』, 1942.5.24. 이 총회에서 김백소와 함께 선출된 이사는 洪開明, 金濯雲, 孫一平, 李樸宰이다.

46) 이광수로부터 부대의 구성을 설명들은 다음날 신정언은 김백소에게 공식적으로 그 경과를 연락이사에게 전할 것을 부탁하고 이광수에게 김백소를 소개하였다. 「징병취지 야담만담행각」 ②, 『매일신보』, 1943.1.12.

변, 이야기 전달력이 좋은 만담가가 주로 담당했는데, 야담만담부대에서 김백소가 단독만담을 공연한 것은 다른 부대원인 김봉이나 이화에 비해 만담 공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야담만담부대 이후 김백소는 이후 살펴보게 될 ‘매신교회선전차대’의 1943년 순회에도 참여하여 만담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하지만 1944년 이후로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야담만담부대에서 대화만담을 담당한 이화와 김봉은 이전의 활동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인 만담가에 해당한다. 이화의 본명은 岩本鐘遇의 남성이고, 김봉의 본명은 金澤壬洙<sup>47)</sup>의 여성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야담만담부대에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sup>48)</sup>, 대화만담을 진행하는 두 사람의 호흡은 상당히 잘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신교회선전차대’의 1943년 순회에도 두 사람은 대화만담을 지속적으로 공연했기 때문이다. 김봉의 경우는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춰 대화만담을 지속하였으나,<sup>49)</sup> 이화는 1944년 이후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야담만담부대에 소속되어 신인 만담가로서 활약을 펼쳤지만 동원의 논리 속에 만담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이들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담만담부대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이것을 주축한 매일신보의 과장된 보도 행태를 전제하더라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동하는 지역마다 수많은 관객이 몰렸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들의 공연을 보고 “爆笑에 終始하면서도 徵兵制度實施의 覺悟認識 國語常用에만흔 感銘<sup>50)</sup>을 받았

47) 『매일신보』, 1942.10.18. 두 사람의 본명이 창씨개명한 것이라, 그 이전의 조선 이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들의 만담활동 이전의 이력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48) 야담만담부대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 신정연의 「징병취치 야담만담행각」에서도 두 사람의 합류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이광수와 함께 군부를 찾아가 10월 20일 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행각」②) 다음에 바로 의정부 공연 현장이 서술되어 있다.(「행각」③, 『매일신보』, 1943.1.16)

49) 매신교회선전차대의 1944년 순회에 김봉은 주성택과 함께 대화만담을 공연한다. 『매일신보』, 1944.5.19.

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야담만담부대의 성과는 조선군의 감사장 수여로 집약된다. 이들의 모든 순행을 마친 1943년 5월에 조선군은 “징병제의 취지 철저히 공헌한바가 만함으로 군사공로자로서”<sup>51)</sup> 부대원 모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게 된다. 야담만담부대의 기획과 진행을 주도한 조선군이 수여한 감사장은 이 부대의 전선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담만담부대가 1회로 그친 것은 1943년 3월 근대문명의 전시효과를 강조한 ‘매신교화선전차대’ 때문이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대의 활동에 함께 하게 되었다.



조선군의 감사장 수여 (1943년 5월 8일) 『매일신보』 1943.5.9.

### 3.2. 과학문명/이동의 전시 : 매신교화선전차대(1943-45)

‘매신교화선전차대(每新教化宣傳車隊)(이하 ‘전차대’)는 ‘決戰下 緊迫한 時局을 一般에게 再認識시키는 同時에 徵兵制의 홍보’<sup>52)</sup>를 위해 『매일신보』 주최,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 국민총력 조선연맹 후원으로 조직된 것으로, 1943년 3월 1일 전남 구례를 시작으로 1945년 8월까지 해마다 4~9개월에 걸쳐 순회 활동을 한 선전부대이다. 이 부대의 특이사항은 이동과 공연의 목적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선전선동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1941년 만주 ‘유동방송(遊動放送)’<sup>53)</sup>이 이미 선보인 바가 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라

50) 『매일신보』, 1942.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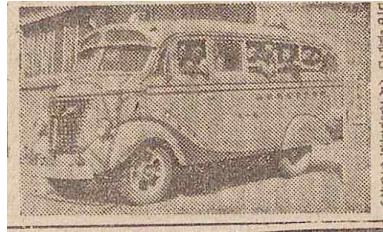
51) 『매일신보』, 1943.5.9.

52) 『매일신보』, 1943.9.17.

53) 만주의 유동방송은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에 의해 기획되어

자동차의 제작부터 주최 측인 『매일신보』는 연신 관련 기사<sup>54)</sup>를 쏟아내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선 화제가 된 자동차부터 살펴보면, 길이와 넓이가 일반 자동차보다도 커서 당시의 버스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자동차 내부는 다음 페이지의 내부구조도에서 보듯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앞은 운전실이고 중앙은 영화실, 후미는 무대이다. 차량 안에 발전기와 영사기, 라디오와 축음기를 갖추고 있었으며, 뒤편의 무대는 다음 페이지의 시연 사진에서 보듯 문을 열었을 때 앞이 12척(약 3.5m), 길이가 6척(약 1.8m) 크기의 공간이 생겨 대략 12, 13인을 수



매신교화선전차의 외관(부대원 전원 탑승) 『매일신보』, 1944.3.2.

1941년 10월부터 개시되었다. 수신과 발신 기능이 장착된 두 대의 자동차를 각각 ‘봉황호’와 ‘기린호’라고 불렀고, 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만주의 산간벽지를 순회하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동차에는 유성기가 장착되어 수시로 레코드를 틀 수 있었으며, 그 외 시국 뉴스와 중국 상성(相聲=만담), 만영의 영화 등을 방송했다. 자동차의 규모로 보아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성 연행자가 동행하여 상성을 공연하기 보다는 영화처럼 상성을 녹음한 유성기 음반을 방송하는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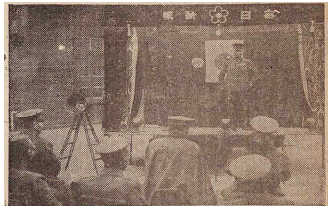
만주유동방송 : ‘봉황호(鳳凰號)’, ‘기린호(麒麟號)’, 『大同報』, 1941.10.26. (이복실 제공)

소리매체를 활용한 자동차의 순회라는 측면에서 만주의 유동방송과 조선의 매신교화선전차대는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데, 유동방송이 매신교화선전차대의 모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주와 조선에서 진행된 자동차를 활용한 선전선동은 차후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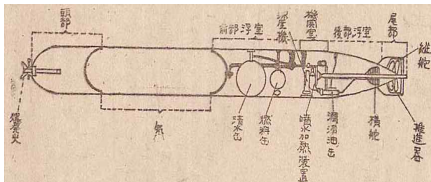
만주 유동방송 관련 사항 및 사진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복실에게 제공받았다. 만주 연극으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유동방송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고문헌이 없는 형태로 이복실에게서 제공받은 유동방송의 대략적 내용만 적는다. 사진과 중요 정보를 제공해주신 이복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54) 『매일신보』, 1943.1.28.

용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다.



매신교화선전차의 뒤편 무대모습.  
시연자는 구라시계 조선군 보도부장.  
『매일신보』, 1943.1.28.



매신교화선전차의 내부구조. 실제 차량보다  
길게 그려졌다. 『매일신보』, 1943.2.25.

라디오와 축음기를 통해 현재진행 중인 ‘뉴스’를 방송할 수 있었고, 유성기 음반의 가요를 자유롭게 틀 수 있었다. 거기에 영화 영사기를 이용하여 무대에 영사막을 설치하고 영화 상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후미의 무대는 야담과 만담의 실연 및 연극 공연까지 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다목적 자동차였고, 그 자체로 “움직이는 무대”<sup>55)</sup>였다.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이 자동차는 제국 일본의 과학 기술 수준을 집약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반도를 방방곡곡 누비는 이동 행위 자체가 제국 일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시(展示)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이 자동차를 만나는 많은 조선인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그 진기한 모양과 생김새에 일차로 감탄하였고, 무대 위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영화가 상영될 때는 그 기술력에 이차의 감탄을 표했다<sup>56)</sup>.

55) 『매일신보』, 1945.5.13.

56) “언제물너드러는지 마당이 뽐뽐하게 모여든 군중들의 입과 입에서는 [그것참히안하네]

자동차가 각종의 예술장르를 실연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차대’의 레퍼토리 구성은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졌다. 공연 순서는 ①전기축음기 노래 소리 ②개회사 ③국민의례 ④전차대장(三山春樹)의 주최 측 취지를 설명하는 인사 ⑤만담(약 40분) ⑥명사 강연 ⑦야담 혹은 만담 ⑧총력연맹에서 제작한 발성영화 2~3편(<우리들은 지금 나아간다>, <탄우의 노래>, <동물방첩선>(만화), <동물애국반>(만화). 영화 사이사이 축음기 노래 혹은 서울이나 동경의 라디오 뉴스 방송) 혹은 촌극 공연 ⑨황국신민서사 제창 ⑩성수만세 봉창 ⑪폐회<sup>57)</sup>로, 공연 시간은 대략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구성과 순서는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혹은 공연 조건에 따라서 연극이나 영화 상영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인간-미디어 야담가와 만담가의 공연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sup>58)</sup>

매해 순회가 진행되면서 ‘전차대’의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공연레퍼토리도 달라졌다. 먼저, 호기롭게 출발한 1943년, ‘전차대가 출발하기 전 홍보기사에 따르면 “조선 만담의 창시자” 신불출이 자신의 신작 <감격시대>를 공연하고, 석옥불(石臥佛)과 박옥초(朴玉草)가 대화만담 <여성기질>(신불출 작)을 담당하기로 되었고, 특히 박옥초는 노래와 무용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광고되었다<sup>59)</sup>. 그러나 실제로는 신불출과 박옥초가 참여하지 못해 유추강과 지취순(池崔順)이 합류<sup>60)</sup>해서 유추강의 야담 <무상

[세상에살다가 벌일다보곤텐]하는 감탄사가 폭발되어나왔고 또조곰있다가 자동차안에서 발전(發電)이되어 장내를백주와가치밝게해주는 백축짜리전등이여기저기서 一시에켜질때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리가 쏘다져나왔다.” 『매일신보』, 1943.10.22.

57) 『매일신보』, 1943.2.25. 실제로 특정 지역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군수와 서장에게 전차대가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 순서였다. 『매일신보』, 1943.5.15.

58) 야담과 만담의 공연이 ‘전차대의 주력 공연 장르였고, 부대원의 구성 역시 운전사와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야담가와 만담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차대를 만담부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59) 『매일신보』, 1943.2.25.

60) 『매일신보』, 1943.2.28. 신불출과 박옥초가 어떤 이유로 불참하게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에도 만담의 대명사로 인정되는 신불출이 ‘전차대에 이름을

무념의 심경>과 석와불, 지최순의 대화만담 <꽃피는 처녀>를 공연했다. 충청도 공연부터는 지최순 대신에 김다영(金茶英)이 참여하여 석와불과 호흡을 맞췄다<sup>61</sup>. 4월 27일 부여공연에는 일본이 부여를 내선일체의 성지로 특화시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고자 신정언이 특별출연하여 “내선일체의 참뜻”을 설파하는 <三萬정신>의 야담을 공연하기도 하였다<sup>62</sup>. 경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시작된 5월 경기도 순회에서는 진용을 새롭게 짠데, ‘야담만담부대의 신정언, 이화, 김봉이 본격적으로 합류하였다. 여기서 신정언은 <신천지>라는 야담을, 이화와 김봉은 이미 ‘야담만담부대’에서 공연했던 <총후의 남녀>를 공연하였다.<sup>63</sup>

“작년의 체험을 살려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및 산업전사들을 위문격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sup>64</sup>하는 것을 목표로 한 1944년의 ‘전차대’는 미야미(三山春樹) 대장과 10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었다. 3월 18일 출발하여 20일 전남 송정리부터 시작<sup>65</sup>한 이들의 순회는 12월 10일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sup>66</sup>. 이때의 레퍼토리는 신정언과 유추강이 야담 <海軍勇士의 명예>를 공연했고, 성희숙(成姬淑)은 가요를 불렀다. 대화만담은 주성택(朱成澤), 김봉이 <우리들 이겼다>로 호흡을 맞췄다.<sup>67</sup> 하반기로 접어들어서는 공연되는 작품이 변경되는데, 대화만담으로는 <태평양>이 새롭게 선보였고, 군사강담인 <반도의 어머니>와 가요춘극 <지나인과 소녀>가 새로운 레퍼토리로 공연되었다.<sup>68</sup>

일본이 패전을 눈앞에 두고 있던 1945년에 ‘전차대’는 4월 5일 순회를

올림으로써 ‘전차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61) 『매일신보』, 1943.4.27.

62) 『매일신보』, 1943.4.28.

63) 『매일신보』, 1943.5.8/5.10/5.12/5.16/5.19.

64) 『매일신보』, 1944.3.2.

65) 『매일신보』, 1944.3.2.

66) 『매일신보』, 1944.12.19.

67) 『매일신보』, 1944.5.19.

68) 『매일신보』, 1944.10.3.

시작하여 8월 13일까지 전라, 충청, 경기를 순회하게 되는데, 시국이 긴박해진 만큼 “싸우는농산어촌의 방방곡곡을방문하여 문화의혜택과아무런 오락도 맞지못하고 증산전에결투하고있는 총후의산업전사를 위안”<sup>69)</sup>하고 “삼엄한 전쟁생활속에서도 부드러운유택을주어 명량한 기분”<sup>70)</sup>을 조성하자는 ‘전차대의 목적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때의 진용을 보면, 김탁운(金濯雲)이 야담 <화랑도>를 공연(경기도에서는 신정언이 담당했다<sup>71)</sup>)하였고, 모처럼 등장한 조하소는 군국의 어머니들의 예를 주된 내용으로 삼은 군사강담<sup>72)</sup> <이 어머니 이 아들>을 공연했다. 주성택은 김봉이 아닌 김영애(金英愛)와 대화만담을 담당했고, 이영자(李英子)의 노래와 환등영화 <승리의 길>, 만극 <봄소식> 등이 공연레퍼토리로 구성되었다.<sup>73)</sup>

부대원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부터 관심거리가 된 ‘전차대’는 다양한 공연레퍼토리를 갖추고 있었기에 다음에 제시된 두 장의 사진에서 보듯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동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추가요청이 쇄도했고,<sup>74)</sup> 이들의 공연에 감격하여 국방헌금을 모금하여 『매일신보』사에 기탁하기도 하였다.<sup>75)</sup>

69) 『매일신보』, 1945.4.5.

70) 『매일신보』, 1945.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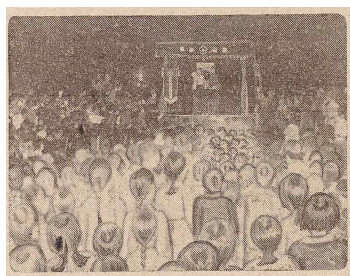
71) 『매일신보』, 1945.5.29.

72) 조하소(趙何笑)가 군사강담을 담당한 것을 놓고 보면, 이 시기 만담가들은 연행의 전 문성을 확보해 나갔다가 보다는 야담과 혼재된 방식으로 공연한 것을 알 수 있다. 조하소는 1937년 무렵부터 이름을 알린 만담가로, 여류만담가 김윤삼(金允心) 등과 함께 만담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3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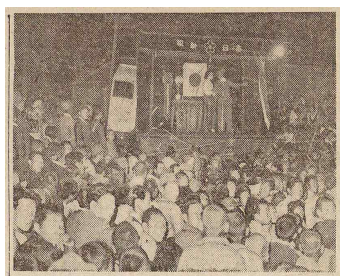
73) 『매일신보』, 1945.5.13/5.29. 공연레퍼토리 장르 명칭에 해당하는 군사강담, 환등영화, 가요춘극, 만극 등은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리 없이 일본 용어를 직역하거나 관습적 용례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된 용어들이다.

74) 『매일신보』, 1943.8.22. 평남의 경우는 수많은 요청 지역 중에서 성천(成川) 한 곳만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전차대’의 순회 일정 자체가 빠빠한 것도 이유겠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 여건 상 차가 도로가 없어 진입이 힘든 산간벽지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인간 미디어로 최적화되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던 ‘야담만담부대’가 선동선전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조직이었다.

75) 『매일신보』, 1943.5.6.



전차대 논산 공연  
『매일신보』, 1943.4.27.



전차대 과천 공연  
『매일신보』, 1943.5.12.

무엇보다 ‘전차대’의 목적인 징병제취지의 보급과 홍보에 대해 “징병의 취지를 비로소알게된이마당에서 [우리는하로바빠 씩씩한군인이 되어나라의부르심에 응하지안하면 안된다]는 영화와 [토-키]를 듣고서는 [울소] [그릿소]하고 감분에겨워 별떡별떡이러서는 씩씩한자태를 보여주<sup>76)</sup>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차대’가 순회한 지역에서는 각 도의 도지사부터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감사문을 보내 ‘전차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징병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sup>77)</sup>

특별히 제작된 자동차를 중요 무대이자 이동수단으로 삼은 ‘전차대’와 그들의 이동은 그 자체로 제국 일본의 강력한 힘을 식민지 조선의 구석 구석에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효과를 구현했고, 인간-미디어인 부대원들과 각종의 공연 레퍼토리들은 전시된 자동차의 일부가 되어 제국의 위용과 권위를 주조하였으며, 웃음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이데올로기를 관객들에게 시청각적 자극으로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전파했던 것이다.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움직이는 무대를 통해 만담가로 나선 사람들은 박옥초, 석와불, 지최순, 김다영, 주성택, 김영애 등이다. ‘전차대’의 중요 공연 장르가 만담이었고 긴 일정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신

76) 『매일신보』, 1943.10.22.

77) 『매일신보』, 1943.4.11/7.31/1944.5.9. 평남 지방을 순회할 당시에는 이운경 개인이 감사문을 보내기도 했다. 『매일신보』, 1943.8.19.

진 만담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경로로 부대원이 되었는지, 무엇을 계기로 만담가로 나섰는지, 그리고 '전차대' 활동의 전후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관련 자료가 없어 추적할 수가 없다. 이동의 레퍼토리와 작품들이 친일부역의 이름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것을 수행하던 인간-미디어의 행보도 그 흔적만 남았다. '전차대'는 분명 친일부역의 노골적 행위이지만 그런 자리에서만 만담이 존재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의 굴곡진 공연예술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4. 전쟁과 웃음, 전복과 순응의 길항

모든 것이 전쟁과 총동원으로 수렴되던 시기, 웃음의 책무는 전쟁의 긴장과 피로감에 포박된 대중들에게 잠시나마 이완의 여유를 제공하는 '오락'으로, 배면에 감춘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선전선동'하여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것이었다. 야담만담부대와 '전차대'의 순회는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 웃음의 부대였고, 이들에 의해 웃음 자체가 지닌 풍자성과 정치성의 복합적 속성은 제국 일본을 위해 복무했으며, 따라서 풍자의 칼날은 무디었고, 그 끝은 식민지 조선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신불출 이후로 본격적 확장의 길에 들어섰던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은 전시체제 기로 접어들면서 그 자체가 동원된 미디어가 되어 극장이 아닌 자동차 무대와 각종 이동의 공간에서 존재했다. 일제 말 지식인과 문화인, 나아가 식민지 조선인 모두가 당면했던 부역과 저항의 선택지는 적어도 만담에서만큼은 동원의 명명과 허락된 공연환경이라는 조건 때문에 큰 고민과 갈등의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금 주목되는 것은 신불출의 행보이다. 1940년 신작 만담

<인생세탁>을 공연하면서 “인생세탁은 눈물의 비누보다 웃음의 비누로 빨아야만 때가 훨씬 더 잘빠진다”<sup>78)</sup>며 웃음의 전복성과 생산성을 끝까지 믿었던 그는 총동원 시기 저항을 선언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접적 언표를 하지는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조선담우협회나 조선연예협회, 조선연극문화협회 등의 조직에 만담가로서 이름을 올렸고, ‘전차대’에도 비록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신작을 발표하기로 계획하는 등 일반적인 순응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만담가들이 인간-미디어로 동원되었을 때 신불출은 “관계적 민간기구나 행사에서 그의 역할이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sup>79)</sup>을 만큼 공연예술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sup>80)</sup> 조직에는 합류하였으나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고, 동원의 명명도 수락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던 신불출의 태도는 그가 선택한 최선의 완곡한 저항으로 읽혀진다<sup>81)</sup>. 이른바 ‘포스트-신불출’이라 할 수 있는 신진 만담가들의 설 자리가 제국에 순응한 만담부대였다는 현실적 공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신정언이 그것을 앞장서서 주도한 것에 비대한 말 떨어져 있던 신불출의 행보는 제국과 식민지, 전쟁과 웃음의 모순적 상황에 놓인 만담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다른 풍경이다.

78) 『매일신보』, 1940.8.21.

79) 이승희, 앞의 논문, 2011, 41면.

80) 이 시기 신불출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은관의 구술 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동연극 신불출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은관과 함께 전국 곳곳을 순회했다는 내용이다.(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 <http://orallhistory.arko.or.kr> 이은관 편)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조직이 어떤 관계 시스템의 작동으로 만들어졌는가의 여부와, 스타 만담가로서 신불출의 행보는 그 자체로 동원과 선전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당시 신문지면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그 이유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자리를 빌어 이은관의 구술 자료는 물론 방계자료들을 수합하여 전시체제기 신불출의 행적과 이동연극 신불출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재구하고 밝혀볼 예정이다.

81) “완곡”하다는 표현은 신불출이 본인의 가능태 안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다. ‘배뱅이굿’을 공연하는 이은관과 함께 순회를 다녔다는 점은 신불출의 만담 구성이 만담부대의 구성논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이 또한 신불출의 선택 및 행적과 관련하여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할 지점이다.

공연예술의 장르들은 특정한 시기와 조건과 결합하여 생성하고, 변화된 환경에 의해 소멸하거나 변모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그 현상은 공연예술사 전반을 통해 무수히 확인되는 바다. 신불출에 의해, 그리고 유성기 음반이나 라디오와 같은 신생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의욕적으로 등장한 근대적 공연예술 만담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분명 해방 전부터 만담가로 활동한 인물들이 많았고, 만담 부대에 동원된 신인 만담가들이 있었음에도 전시체제가 이전만큼의 활력을 갖지 못한 것은 해방 후의 급변하는 정국과 예술인들의 월북, 흥행산업의 논리 등 무수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야담만담부대와’ ‘전차대’에서 인간·미디어로 소모되었던 만담의 순응과 동원의 결과도 중요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신생 예술장르가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장르에 대한 실험과 실천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학문적이고 비판적 접근을 통한 담론이 형성되어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고유한 장르미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sup>82)</sup> 만담은 전통 예능의 다른 이름인 ‘민중오락’의 하나로 생성되었고, 오랜 시간을 거쳐 장르미학을 정립하였으며, 근대의 산업자본과 결합하면서 공연예술로서의 면모를 확고하게 다졌다. 이런 시간과 노력의 과정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만담이

82) 2012년 10월 필자는 일본의 만담 답사를 위해 오사카를 방문했는데, 오사카에는 만담만 전용으로 공연하는 극장이 3곳이나 있으며, 그 중 요시모토 흥업의 본원인 요시모토극장에서는 만담공연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었다. 마술과 기예가 결합되어지고, 대화만담(담담, 담담)과 단독만담, 그리고 간단한 희극을 포함하여 총 4시간을 공연하는 레퍼토리 구성은 만담의 공연예술적 장르미학을 극대화한 것으로, 이런 시간에도 2층 객석까지 가득 채운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은 연이어 진행되는 만담과 스타만담가의 일거수일투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만담 자체를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담전용 요시모토극장(오사카)

중요한 공연예술로 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식민지 조선의 만담은 인적 자원이 형성되고, 관객의 수요가 확대되며, 지면을 통해 만담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어 본격적인 장르미학을 구축할 시기에 제국에 의해 동원되면서 그 시간과 노력의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만담은 잡종의 예능 중 하나로 인식되어 독자적 공연을 하기보다는 여타의 다른 공연예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유지했으며, 김윤심이나 이은관, 장소팔, 고춘자 등 몇몇 특별한 만담가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다가 TV의 보급과 확대, 그리고 새로운 코미디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코미디와 개그로 급속히 전환되었고, 지금은 극장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공연예술이 되었다. 전시체제기 만담부대와 만담가들의 활동을 추적하여 재구한 이 논문은, 지금은 극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웃긴' 공연예술인 만담에 대한 향수가 전제되어 있다. 인생 세탁은 웃음의 비누로 빨아야 한다는 신불출의 웃음 논리가 다양성을 품지 못하고 평가르기의 웅색함에 갇혀 사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 2. 단행본

강옥희·이순진·이승희·이영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사전』, 도서출판 소도, 2006.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엘피, 2013.

반재식, 『만담 백년사』, 백중당, 2000.

3. 논문

- 김경희, 「신불출의 문예활동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12권, 국문학회, 2004.
- 김호연, 「일제 강점 후기 연극 제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이동극단, 위문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 박영정, 「만담 장르의 형성과정과 신불출」, 『웃음문화』 제4호,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 배선애,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과 야담대회」,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 엄현섭, 「신불출 대중문예론 연구」, 『비교한국학』 제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 요네야마 리사, 「오락·유머·근대 —모던만자이의 웃음과 폭력」, 『확장하는 모더니티』(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역), 소명출판, 2007.
-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가 이동연극 연구 —이동연극 제1대와 극단 현대극장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 이승희, 「배우 신불출, 웃음의 정치」, 『한국극예술연구』 제3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 \_\_\_\_\_, 「전시체제가 연극통제시스템의 동원정치와 효과」,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 이화진, 「전시기 오락 담론과 이동연극」, 『상허학보』 제23집, 상허학회, 2008.
- \_\_\_\_\_, 「일제 말기 이동극단 활동의 전개 양상과 그 한계」, 『한국학연구』 제30집, 한국학연구소, 2013.
- 천정환, 「식민지 조선인의 웃음 —『삼천리』 소재 소화와 신불출 만담의 경우」, 『역사와 문화』 제18호, 문화사학회, 2009.
- 홍선영, 「전시기 이동연극과 ‘국민문화운동 : 일본이동연극연맹(1941.6~1945.8)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45집, 한국일본어문화학회, 2010.
- \_\_\_\_\_, 「제국의 문화영유와 외지순행 —天勝一座의 <살로메> 景福宮 공연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3권, 일본근대학회, 2011.

## Abstract

# Mobilized media, Mandam performing group and Mandam tellers on the war basis

Bae Seonae

This study is about the Mandam performing group and Mandam tellers as mobilized media, on the war basis. Various moving entertainment group affected planning to organize Mandam performing group. Moving entertainment group purposed on encouragement, appreciate and amusement. These purposes became a model of tactics that Mandam performing group have to. On the war basis, representative mandam performing group is 'Yadam-Mandam performing group'(1942) and 'Maeshin moving car propaganda group'(1943~45). These groups were organized to propaganda conscription system. Especially, 'Maeshin moving car propaganda group' displayed authority of Empire Japan by using car that integrated modern science techniques. New mandam tellers performed not theater but Mandam performing group, and they sent the Empire Japan's ideology to colonial Chosun. Mandam and Mandam tellers as mobilized media were consumed, therefore, Mandam was impossible to grow as separated performing art.

Key words : Cho Haso, Kim Baekso, Kim Bong, Kim Yunshim, Lee Hwa, 'Maeshin moving car propaganda group', Mandam, Mandam teller, mobilized media, Moving entertainment group, Shin Bulchul, Shin Jungun, Son Ilpyung, 'Yadam-Mandam performing group'

접수일: 2015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5년 5월 11일~5월 31일

게재결정: 2015년 6월 19일